

기존 동년기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복제전통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
대원동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발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그릇된 수단으로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본생경)

법회 안내

- 관동시 (02)355-4148
- 인법법회 매월 3일(음)
- 방생법회 매월 8일(음)
-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 관음포교인 (02)863-9649
-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 한수용맹기도 매월 25~27일
- 일요가람법회 매월 셋째
- 일 오전 10시30분
- 가곡불신법회 넷째 일 오전8시
- 진동차입우회 셋째 수 오후2시
-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 경명사 (02)735-1896
-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 구암사 (02)877-2378
-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 반야법회 매월 15일(음)
- 상지순례 매월 1회
- 부산 영주원 (051)754-2210
-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
- 중·고생법회 토 오후3시
- 장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 장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대구 대광명사(053)253-0514
- 국민학생·중학생법회 매주
- 토 오후2시30분
- 고등학생법회 토 오후3시00분
- 청소년법회 매주 수요일
- 보성법교포교당(0634)33-2810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 중·고생법회 토 오후2시
- 장년법회 첫째 일 오전10시
- 군인법회 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
람·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64

불교TV 1일개국...채널32...영상포교 "활짝"

안방부처님 시대 열렸다

월하 중정 "사람의 가슴속에 더 많은 법당을..."

'가슴마다 사람, 온 누리에 기쁨'을 전하는 환한 법교 소리의 향에 불교텔레비전 개국의 광과리가 전국을 휘덮었다.

지난 1일 오전10시 전국 20개사의 종합유선방송이 일제히 개국되면서 1월 5일부터 실시한 55일간의 시험방송을 마친 불교텔레비전도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형 고풍사를 앞두고 영상포교의 장엄한 서막을 열었다. <관련기사 17-19면>

고분식에서는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 총무원장 원주스님 및 각종단 대표,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용스님, 주주단 대표, 국회의원회 회장 권인현의원, 각 산도단체 상임 고계 지도자 2백여명이 참가 개국의 광경을 함께 나눴다.

10시 정각에 시작된 고풍식에 앞서 불교텔레비전은 불교 2천5백년을 일축 설명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방송,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다. 3분 30초 분량의 이 컴퓨터 그래픽 쇼는 인도에 불교가 꽃피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을 연못을 피우는 금시호의 날개짓으로 표현, 환상적 영상을 과시했다. 또 한국불교



"온 누리에 기쁨 전하겠습니다" 불교텔레비전이 지난 1일 개국 고풍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상포교에 들어갔다. 이날 전국의 본사와 일사에서는 불교 TV의 개국을 지켜보며 감격의 박수를 쳤다. 사진은 고풍문을 낭독하는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용스님. (박재원 기자)

1천5백년도 팔만대장경 등 문화 유산과 신영의 현장을 회안가 특 담자 상강해 불교텔레비전의 영상미를 한껏 보여주기도 했다.

이제진, 김삼녀씨가 진행한

개국 고풍식은 불교텔레비전이 자랑한 고풍비밀 15층 가설 빌딩에서 봉행됐다. 김승현 방송위원의 "불교텔레비전은 지금 이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라

이어 석주스님이 대독한 법문을 통해 중정 원하스님은 "이제부터 사람의 가슴속에 더 많은 법당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무원장 원주스님도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모습과 음성이 모든 삼라만상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 정토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고풍식에서는 고은씨의 축사를 불자 탤런트 김용림씨가, 사인들의 발원문을 고은희 아나운서가 각각 낭송했다.

불교합창단의 축하 "목련송"을 마지막으로 1시간의 고풍식이 끝나고, 오전 11시부터는 30여명의 불자들이 방청객으로 참가한 가운데 불교 TV의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불교 TV입니다"가 방송됐다.

이날 본격 개국을 한 불교텔레비전은 5일까지 개국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매일 10시간의 정규방송에 돌입했다. (임태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 16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 하에 소재를 선별하고 본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현대불교는 1차로 지난 호에서 「관음종」의 법공양면을 제작, 전국 독자에게 빠짐없이 배포했습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본인 부

법공양면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단·사찰 대상 실비제작 독자에겐 사실상 증면 효과

답하기 희망하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제작을 원하는 부수(部數)의 실제 인쇄비 및 우송료로 한정됩니다.

현대불교가 일반 제작비 부담중가를 무릅쓰고 법공양면을 신설하는 뜻은 주 16면 발행만으로는 각 사찰마다 행해지는 실비를 지상증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 8-9면에 게재 중인 「자상법식」을 확대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를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공양면의 크기는 신문대판과 타블로이드 판형 두가지입니다.

법공양면을 이용하려면 본사 소장양식에 따라 미리 제작일자를 약정하여야 하며 한번의 이용 면수는 2개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각 종단·사찰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인가 사찰마다 복지시설 운영 제도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주스님)이 지난달 27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조계종은 다종교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여 있던 복지시설 및 기관의 위탁운영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각 사회복지 시설·단체 운영 지원 △사회복지연구·조사·홍보 △사회복지 자립·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교육 △목내외 사회복지 연구교류 △출판·회보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가게 된다.

조계종은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음에 따라 향후 1사찰 1복지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반 제도와 행정체계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초 비구니 노후 복지시설 15면 불교TV 특집 17·18·19·20면

목어

조조의 아들 조비가 그의 동생 조식에 말했다. "내가 꿈에 능하다니 어디 일곱달 동안에 시를 읊어 보아라."

『蕉潭雜錄 亞在中位 本朝同機主 相閑同太急』(夢을 꾸는 데 장애를 해우니 꿈은 순탄에서 우뚝나. 본래 한 뿌리에서 낫거늘 서로 불분가를 어찌 이리 급한가) <삼목지>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픈 말은 '한뿌리'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형제보다 친구만 좋아했다. 하루는

있었다. 부모·형제·동료·국가 등 수많은 관계의 연속속에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좋을수록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불편한 관계는 생각만해도 불쾌하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숨이 나옴과 그러다 보면 '나' 뿐 아니라 주위도 불편

본래 한 뿌리

"두려워 말라. 어떤 방면을 써서라도 어려움을 면하도록 할 것이다."

(송요경)은 이런 얘기를 통해 친학·동기아발로 으뜸가는 친구라고 일러준다. 우리는 관계속에 살아가고

친학이고 동기인 셈이다. 특히 이들은 불자들중에서도 남다른 불자다. 불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고 실천을 강조하는 일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관무량수경>에 보면 불사이란 '큰 자비심'이라고 했다.

큰 자비심이란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은 이어진다.

불교TV 개국으로 이제 불교인들은 영상·음성·활자를 종합매체가 되었다.

이들은 서로 '큰 자비'를 발원한 한 뿌리의 친학들이니 권법의 메아리가 사방세계에 두루하도록 합심하여 정진하면 내일이 밝으리라.



해동75산, 오대산 칠성사(서해북), 국산 성문사(충북북), 서울 창고교회, 서울 개원구역, 부산 관기장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숯기과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시공후 오랜 시간내에 표면에 차광한 조리의 진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상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동관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의 고색상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관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이용, 우리나라의 전통적 형태와 국산재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표기와의 10분의 1 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숯기과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会社 豊山 電話 : 273-3021/9 FAX : 273-3835